은행 '점심시간' 논란

"1시간 보장" vs "일 어찌 보라고"

전국금융산업노조, 점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요구

은행원도 업무강도 높아…현행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점심에 은행 문 닫으면 어떡하나? 직장인들 '불만'

평균 연봉 9000만원, 말끔한 차림, 엘리트 느낌이 강한 은행원은 늘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은행원이 일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토로하면 '배 부른 소리한다'는 식의 거센 비판이 일곤 한다.

금융권 노동조합의 점심시간 1시간 요구로 은행원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행권에 지난 2002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2009년 폐점시간이 오후 4시로 단축된 당시에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에도 노사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객은 뒷전'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은행원들은 다른 직장인처럼 점심 휴게시간을 갖겠다는 것인데 대체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평균 연봉만 놓고보면 화려해보일 수 있어도 실상은 실적 압박, 고객 응대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감축 등 불안한 현실에 놓여있는 처지라고 말한다. 반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은행이 문을 닫으면 불편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것이냐며 팽팽히 맞선다.

일단 노조는 중식 휴게시간 1시간 보장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놨고, 노사는 다음달 10일 차기 대표단 교섭을 갖기로 했다. 은행권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 "교대로 식사, 휴게시간 보장 안 돼"

은행권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원의 휴게시간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봉이 높은 은행원이라고 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선 영업지점에 나가있는 은행원들은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은행 문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열려있지만 오전 8시 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문을 닫은 뒤에도 오후 7시는 돼야 일이 끝난다. 야근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다음 사람을 생각하다보면 20~30분 내에 얼른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A은행의 분당지점 은행원은 "점심시간에 밥은 거의 20분 만에 먹고 돌아온다"며 "지점에 직원이 20명 정도인데, 실제 상담창구에는 3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밥을 먹다보면 점심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명당 20분씩 밖에 못쓴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직원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는 1시간 이내로 썼다. 이는 시중은행 14곳을 대상으로 전직원 7만4200여명 중 3만144명(45%)가 응답한 결과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금처럼 점심시간을 교대로 쓰는 것은 시간대를 바꾼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사측에서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면 은행 문을 닫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비스 산업인데, 고객 생각은 안해"

반대 목소리도 높다. 근로자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당장 불편함은 고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들 사이에 불만이 더 크다. 평일 오후 4시면 문을 닫고, 주말에는 아예 열지 않아 점심시간이 아니면 은행을 찾을 시간이 거의 없다. 은행들마다 점심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담합하듯 모든 은행들이 점심시간에 셔터를 내린다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카드 재발급을 위해 회사 근처의 은행을 찾았던 직장인 김모(28)씨는 "평일에 은행 갈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보면서도 시간을 신경써야 했다"며 "그런데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아예 은행 갈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일괄적으로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게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면 영업을 강화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큰 돈이 오가는 대출 상담 등을 위해 은행을 찾는 수요도 많다.

가뜩이나 은행 점포축소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주력 영업시간인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영업 자체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B은행의 한 간부는 "점심을 위해 문을 닫자는 것은 은행 영업 환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본다"며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아놓으면 불편함을 느낄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 어디를 향하겠느냐, 대부분 고객들은 '배가 불러 앓는 소릴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의성 측면으로 볼 때 은행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업점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식의 조치를 취해야지 소비자에게 짐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심사 통과

올해 하반기 시행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상반기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엔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나 혼자 먹는다"

외식업계, '1인 메뉴' 승부

가성비 높은 메뉴 선보여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외식업계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여럿이서 즐기던 메뉴를 1인용으로 출시하거나 가성비 높은 1인 세트 메뉴 등을 선보이는 추세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랩 형태의 피자 샌드위치 '피자 랩(Pizza Wrap)'을 출시했다. 다양한 토핑을 씬 도우로 말아 오븐에 구워낸 랩 형태의 피자 샌드위치로 혼자서도 간편하고 저렴하게 피자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와규 크럼블에 로마노 크림치즈, 모차렐라 치즈, 브리치즈 소스 등 3가지 프리미엄 치즈를 사용한 '더블치즈 와규'와 풀드 치킨에 베사멜 크림소스와 라클렛 치즈소스를 더한 '풀드 치킨' 등 2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각각 4800원이다.

커피전문점 파스쿠찌는 시그니처 메뉴인 그라니따의 레드빈 시리즈를 리뉴얼해 출시한다. 그라니따 '레드빈 시리즈'는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파스쿠찌의 스테디셀러 메뉴로 이탈리아 정통 디저트인 그라니따에 팥빙수 재료를 더해 개발한 1인 빙수다.

떡과 쑥을 함께 갈아 만든 '쑥떡쑥떡 그라니따'와 단팥과 인절미를 넣은 '단팥통통 그라니따', 인절미를 가득 담은 '찰인절미 그라니따' 등 3종이다.

편의점 GS25는 부채살과 채끝살 등 호주 청정우 스테이크용 고기 2종으로 '한 끼 스테이크'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호주 청정지역에서 자란 블랙 앵거스 품종의 부채살과 채끝살을 두툼하게 썰어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급속 냉동해 들여온 스테이크용 정육이다.

1인분 분량으로 해동 후에 집에서 스테이크 육즙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혼자서도 간편하게 피자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작년 개인실손 계약 증가…위험손해율은 감소

지난해 개인실손 보유계약이 이전보다 늘었다. 반면 위험손해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실손 보유계약은 3419만건으로 전년말(3332만건)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국민 5178만명의 66.0%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위험보험료는 6조2198억원, 발생손해액은 7조5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을 나타내는 위험손해율은 전년 대비 9.6%포인트 감소한 121.7%를 기록했다.

보유계약 중 손보 점유율이 81.5%(2787만건)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상해와 질병 등으로 표준화했는데 그 이전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 해약이 늘면서 손보 점유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4월 판매 개시된 신실손 보유계약은 168만건으로 집계됐다. 노후실손은 2만9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개인실손의 위험손해율은 121.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31.3%)대비 9.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